

진화하는 스포츠용 기능성 소재(2)

아세히카세히섬유

아세히카세히섬유는 지속성 흡수속건성소재 ‘SUREDRY[∞]’와 지속성 청량감 소재 ‘MoisTex Cool²’를 개발하였다.

기존의 흡수속건성소재는 이형단면에 의한 모세관현상을 발생시키고, 후가공시 흡수가공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, 반복세탁에 의해 흡수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. ‘SUREDRY[∞]’는 고분자 단계에서 가공하는 것으로 폴리에스터 섬유표면을 친수화하여 실 자체에 흡수성을 부여하였다. 흡수제를 사용하지 않고, 고분자 단계에서 실시하는 가공이기 때문에 세탁 100회 후에도 흡수속건성이 지속된다. 운동경기나 아웃도어, 학교 체육복 용도로 전개하고 있다.



<지속성 흡수속건성 소재 ‘SUREDRY[∞]’>

‘MoisTex Cool²’은 쿠프라섬유인 ‘뱀베르그’와 폴리에스터를 복합한 다층구조 편성물이다. 흡수속건, 통기, 방열, 흡방습의 4가지 기능을 조절하여 기존 소재에 비해 착용시의 체감온도가 2℃ 이상 낮고, 청량성이 유지된다. 골프의류나 오피스용 쿨비즈 용도로 전개하려고 한다.

안정한 착압을 유지하여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 ‘ELACTION-PRO’는 지금까지 타이츠에 추가하여 새롭게 상의용으로도 전개하려고 한다. 또한 학교체육복과 학생복을 취급하는 학생복 메이커용으로 ‘뱀베르그’와 폴리에스터 복합의 니트 슈트를 제안하여 판매확대를 모색하고 있다.

♣ 섬유뉴스(2013.12.12)